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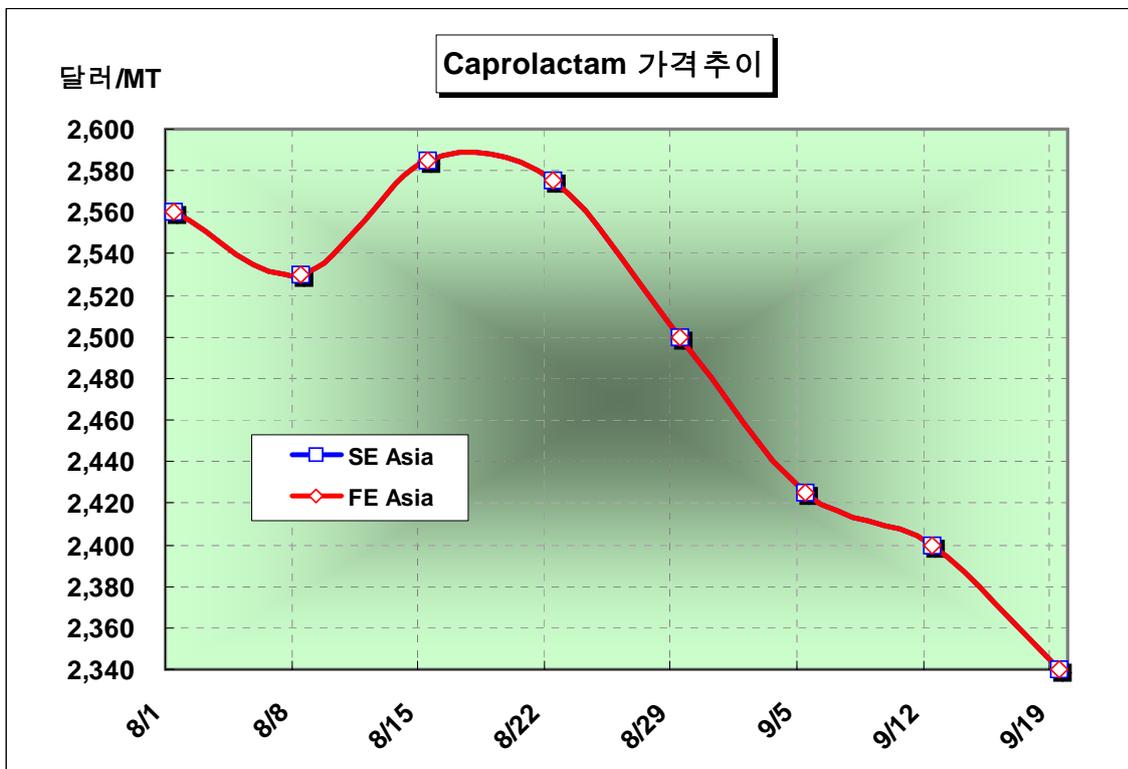
CPL, 2300달러도 위험 “폭락장세”

CFR FE Asia 2335-2345달러 형성 ... 수요 침체에 원료가격도 약세

아시아 CPL(Caprolactam) 가격이 연속 추락하며 9월18일 CFR FE Asia 톤당 2335-2345달러를 형성해 2300달러 붕괴를 코앞에 두고 있다.

중국의 화섬시장 불황 장기화 및 원료 약세로 가격폭락이 거듭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추가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.

9월19에는 9월 하순 도착예정인 2000톤 Cargo가 9월 신용거래 기준으로 CFR China 톤당 2420달러에 체결됐는데 현 상황과는 무관한 계약으로 평가되고 있다.



아시아 벤젠(Benzene) 가격은 9월18일 FOB Korea 톤당 1062달러로 전주대비 40달러 하락했다.

한편, 원료 암모니아(Ammonia) 가격은 수급타이트에 힘입어 CFR Northeast Asia 톤당 920-930달러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. <이선애 기자>

<화학저널 2008/09/25>